

50만kw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추진

한국중부발전은 한국전력기술과 2월23일 서울 코엑스에서 50만kW급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실증연구사업 및 해외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사업은 국내 최초로 50만kW급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8개월의 기간과 총사업비 820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에 설치돼 황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를 중국 등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24>